

# 기장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연구

이희정\*

## | 목 차 |

- I. 서론
- II. 형식적 특징과 불상 관련 기록
- III. 나흠의 활동과 불상 특징
- IV. 개금수리와 원형
- V. 결론

## | 국문초록 |

안적사(安寂寺)는 범어사의 수사찰로, 기장군 장산의 북쪽 연봉 앵림산(鶯林山)에 위치해 있다. 의상대사 창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물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석가여래삼존상(이하 안적사 상)은 17세기에 제작된 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근대기 작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1654년 조각승 나흠이 만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대기 불상으로 추정하게 된 것은 1919년에 완호와 시찬에 의해 행해진 수리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안적사 상의 원작자인 나흠은 조선후기 17세기 최고(最古)의 불석제 불상인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을 조성했는데 원래 통도사에 봉안되었던 상이다. 지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hjsmart68@naver.com](mailto:hjsmart68@naver.com)

금까지 이 상 이외에 그의 다른 제작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안적사 상이 나흠의 작품임을 확인하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통도사와 안적사 상 이외에 범어사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이 나흠이 조성한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은 안적사 상과 대동소이한 조각적 특징으로 1919년 수리 이전 안적사 상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17세기 후반 대표적인 석조조각승인 승호(勝浩)와 경옥(敬玉)라 한다면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석조조각승은 나흠(懶欽) 그리고 동시에 활동한 영이(靈蹟)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도 주요한 내용이다.

주제어: 기장 안적사, 불석, 나흠, 통도사, 범어사 나한전, 완호, 시찬

## I. 서론

안적사(安寂寺)는 기장군 장산의 북쪽 연봉 앵림산(鶯林山)에 위치해 있다.<sup>1)</sup> 이 절은 문무왕 원년(661)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전하는데<sup>2)</sup> 창건설화에 따르면 의상과 원효가 구도를 위해 명산을 다니던 중 장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꾀꼬리 떼가 길을 가로막자 이를 신성한 곳으로 여긴 두 스님은 지금의 안적사 터에 가람을 세우고 이곳에서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sup>3)</sup> 지명 중에 앵림산은 꾀꼬리와 관련된 것이며, 안적사는 적멸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모두 이 설화와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의 안적사에는 창건과 관련된 유물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것이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하 안적사 상)이

1)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792쪽.

2) 안적사의 조성기문에는 의상대사 창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 1, 2, 3> 참조.

3) 덕명, 「안적사 창건유래」, 안적사, 1972.;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하, 기장군청, 2001, 397쪽; 조원영,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향도부산』 31, 2015, 219~221쪽.

다. 이 상에서 확인된 조성기문에 의하면 1654년 나흠이 만든 불상이라 하는데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안적사의 복구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며, 이 불사를 주도한 인물은 묘전(妙全)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안적사 상을 조성한 나흠은 17세기 전반 경상도에서 활동한 현진과 청헌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이다. 그가 만든 석조불상이 양산 원효암(원래 통도사에 봉안)에 봉안되어 있는데 조선후기 최고(最古)의 불석제(佛石製) 불상이며, 기장 척판암에도 그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조불상이 남아 있다. 이 두 곳의 불상은 신체비례, 얼굴 등 양식적 특징이 유사하지만 나흠의 불상이라 하는 안적사 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 과연 그의 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번 조사·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모습은 1654년 조성 이후 1919년, 1970년, 2014년 모두 세 번에 걸친 개금 수리의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안적사 상이 언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적사 상의 형식적 특징과 조성기문 등 불상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나흠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작업한 조각승의 활동, 그리고 조각승 간의 양식적 관련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적사 상의 현재 모습은 세 번의 개금 수리 과정 중 언제 이루어진 것이며, 수리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원래 모습 즉 안적사 상의 원형은 어떠한가를 차례로 밝혀보고자 한다.

4) 妙全은 범어사 중창주로 1602년 초창하고 1658년에 범당을 중창하였으며, 불상은 해민의 주도하에 불상을 만들었다.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兼丹牘記』(1713년) “…壬寅之歲有子遺僧妙全輩初創法堂至戊戌重創海敏相云而創之既久…” 『梵魚寺誌』, 40쪽; 안적사와 범어사의 관련성은 안적사 유공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安寂寺有功記』(1873년) …許梵魚寺慶虛大師使之監役重修法堂…

## Ⅱ. 형식적 특징과 불상 관련 기록

### 1. 형식적 특징

현재의 안적사 대웅전 불단에는 가운데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을 협시로 하는 석가여래삼존상과 2구의 동자상이 봉안되어 있다. 동자상은 삼존상과는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여 이후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석가여래삼존상은 흰색의 무른 돌인 불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한 돌로 이루어져 있다. 세 존상의 특징을 보면 결가부좌한 자세에 손 모습은 손등을 위로한 양손을 두 무릎 위에 두었는데 전형적인 조선후기 석불의 수인이다.

가운데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이하 석가상)은 넓은 어깨에 긴 상반신과 다리가 이루는 비례가 좋으며, 무릎이 높다<그림 2>. 다리 위에 둔



<그림 1> 안적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의 봉안 모습

양손은 뭉툭하며, 두 협시 보살상과 달리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것은 특이하다. 또한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 길이가 짧는데 훼손이나 수리에 의해 변형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다. 머리와 낮은 육계의 경계에는 큼직한 반원형 중간계주가 특징적이며, 정상에는 정상계주가 있다. 가름한 얼굴에 이마가 넓고, 눈꼬리가 아래로 살짝 내려온 눈, 오뚝한 코와 살포시 다문 입 등의 표현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준다. 옷은 오른쪽 어깨를 가린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드



〈그림 2〉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본존), 85.0cm

러난 가슴과 팔은 양감이 있다. 오른쪽 어깨에 3~4개의 옷주름은 둥근 끝단이 층단을 이루고, 가슴 위로 높게 올려 입은 승각기는 긴 연잎 모양으로 끝을 뾰족하게 하여 조선후기 불상의 전통적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배 앞으로 돌아가는 대의 역시 보살상의 옷과 같이 안쪽 면이 대의와 편삼이 교차한 것처럼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일반적인 조선후기 석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형식이다. 무릎으로부터 다리로 올라가는 3개의 옷주름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다리 앞으로 겹쳐 내려오는 넓은 2개의 옷주름은 아랫자락의 가장자리를 바깥으로 접어 물결형의 두꺼운 끝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좌우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착의법은 본존상과 다르지만 얼굴, 신체비례, 수인 등의 특징은 대동소이하다<그림 3>. 보살상은 본존

상과 달리 둥근 어깨에 긴 상반신이 둔중하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곧게 내려와 있는 점도 역시 본존상과 다르다. 머리의 정상부는 두 가닥으로 둥글게 말린 보계가 있으며, 귀의 앞과 뒤로 내려온 한 가닥씩의 보발은 어깨에서 합해져 다시 3개로 나뉘어 흘러내린다. 머리에는 문양 장식이 없는 간결하면서도 나지막한 보관을 썼는데 끝이 능형을 이루고 소판과 대판을 겹쳐 놓은 듯한 모양으로 고려 후기 이후 유행한 겹보관을 모방한 것이며, 대륜은 두 줄의 도드라진 융기선이 돌아간다.



〈그림 3〉 안적사  
석조보살좌상(좌협시), 74.0cm

옷은 오른쪽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두른 변형통견식으로 입었으며 가슴 위로 높게 올려 입은 승각기는 윗단을 밖으로 접어 안쪽 면이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기법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현진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들의 불상에서 보이는 옷 표현으로 제작시기 또한 짐작하게 한다. 치마도 띠로 묶어 입었는데 띠의 위 아래로 잔주름을 표현하는 섬세함은 전반기 불상에 보이는 특징이다. 배 앞에 교차되어 있는 큼직한 편삼과 대의의 옷자락은 면이 얇고 편평해 불석제 불상의 조각적 특징이 드러나며 이와 대조적으로 다리 위의 옷주름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두꺼운 물결형의 끝단 등의 특징은 본존상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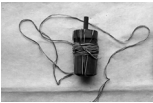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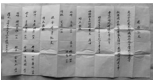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안적사 상은 긴 상반신에 높은 무릎과 다리 위에 놓인 뭉툭한 손, 높게 올려 입은 승각기,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하반신의 옷주름과 물결형의 두꺼운 끝단 등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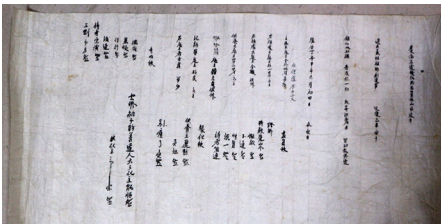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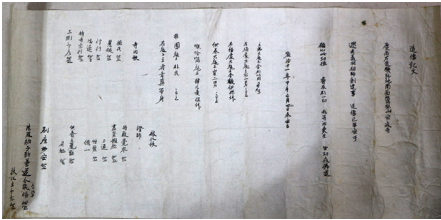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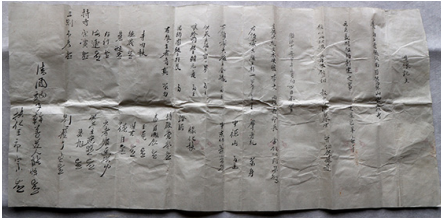
편 보살상은 무문에 나지막하고 끝이 능형을 이루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둥글고 넓은 어깨에 무게감이 있는 상반신, 본존상과 다르게 모두 곧게 뻗은 손가락, 그리고 승각기 상단을 바깥으로 접어 안쪽 면이 둥글게 드러나는 것 등 본존상과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 2. 불상 관련 기록

최근에 안적사에서는 본존인 석가상의 복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복장에서는 7건 66점의 복장물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1654년 조상기문, 후령통, 1638년 재악산 영정사에서 인출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일부만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표 1>.

<표 1>안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복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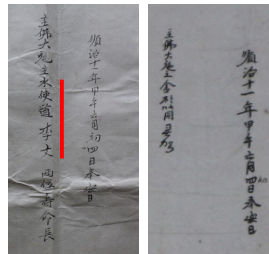
	내용	사진	규격(cm) 가로×세로	수량	재질	연대	비고
1차	조상기문		60×28	1매	종이	1654년	順治11年, 甲午
	후령통		높이 12.2	1점	금속	조선	후령통: 조선 후기 오색사: 현대
	묘법연화경 권제1		전곽 33.5× 21.5	60매	종이	1638년	밀양 영정사본: 崇禎十一年戊寅 十一月日慶尙道 密陽府載岳山靈 井寺開刊
2차	개금불 사기문		57×32	1매	종이	1970년	應化2592年, 庚戌
3차	개금불 사기문		47×37.3	1매	종이	2014년	佛紀2558年



〈그림 4〉 안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조상기문  
(상: 본존상/ 중·하: 보살상),  
〈참고 1,2,3〉내용 참조.

大勢 觀世音菩薩 聖如來佛	名	安寂 寺
石塗 像	稱	梵 尊
一	品 質	檀 香
一	數 量	檀 香 道 楪 張
	其 ノ 他 重	

〈그림 5〉 범어사본말사재산대장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그림 6〉 안적사 불상기문 세부,  
1654년 (향좌: 본존상)

그 외 1970년과 2014년 개금불사기문 2매, 항목, 다라니 등이 확인되었는데 개금불사 기문이 2매인 것으로 보아 두 차례의 개금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살펴볼 것은 불상과 관련된 기록인 1654년 조상기문, 1970년, 2014년 개금불사기문이며, 아울러 1919년 지장시왕도의 화기에 적힌 대웅전 불상의 개금 관련 내용이다.

먼저 1654년 조상기문은 안적사 신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조성 시기, 봉안처, 시주자, 화원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적사에는 최근에 확인한 석가상의 조상기문 외에 2000년 초반에 확인했던 기문 2매도 있



는데 각각 언제, 어디에서 꺼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그림 4>. 본존상과 보살상의 기문은 필치가 조금씩 다르고 본존상의 기문이 보살상 것보다 좀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sup>5)</sup>

기문에는 원효가 안적사를 창건했다는 기존설과 것과 달리 의상대사가 안적사를 창건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삼존상은 순치 11년(1654)에 나흠, 옥련, 성현, 덕일이 조성했으며 증명 겸 지전(持殿)은 각잡(覺峇), 화주는 능오(能悟)와 인종(印宗)이 맡았다고 기록하였다.

어떤 상을 제작했는지는 주불, 좌우보처로만 기록되어 정확한 도상은 알 수 없다. 다만 참고될 만한 것은 융희 3년(1909)에 작성된 『사찰고(寺刹考)』나 1928년 이후 제작된 『범어사본말재산대장(梵魚寺本末財産臺帳)』을 보면 본존상을 석가여래, 다른 두 상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적어 일제강점기에 삼존의 도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재산대장에는 도금된 석상(石像)이라는 내용도 기록하였다<그림 5>. 조선후기 석가상은 오른팔이 드러나도록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안적사 본존을 석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654년을 전후한 시기, 즉 조선후기 대응전에 봉안되었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보살을 협시로 한 삼존 구성은 좌우측에 문수·보현보살 또는 제화갈라·미륵보살을 두는데<sup>6)</sup>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존상의 기문에는 다른 두 기문에 보이지 않는 이름이 보이는데 시주자 중 수사도(水使道) 이문(李文)이라는 사람이다<그림 6>. 꼭 같은 이름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 찾을 수는 없었으나 1653년에 이문위(李文偉)이라는 인물이 경상도 수사로 제수되

5) <참고 1, 2, 3>의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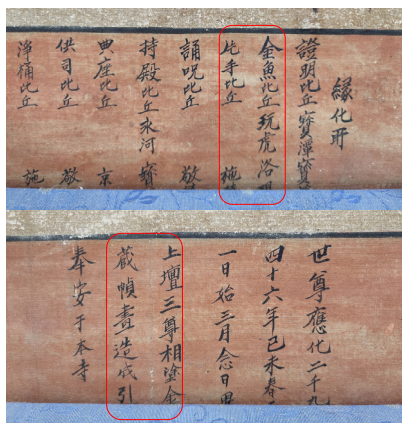
6) 이희정,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고학』 6, 2019, 91~94쪽.

었다는 내용은 있다.<sup>7)</sup> 추정컨데 제수된 시기 등으로 보아 이문(李文)과 이문위(李文偉)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고 기문에 이문은 이문위의 오기로 추정된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적사 상의 변형은 개금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모두 시기가 다른 3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19년 지장시왕도의 명문, 1970년과 2014년 2매의 개금불사기문인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적사 지장시왕도의 화기에는 “…金魚 玩虎洛現 片手比丘 施贊…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六年上壇三尊相塗金”이라 하여 1919년 상단의 삼존상 도금을 금어 완호낙현과 편수 시찬했다라는 내용이다<그림 7, 8>.



<그림 7> 안적사 지장시왕도, 1919년,  
가로/세로 150.0/ 149.5cm



<그림 8> 지장시왕도의 화기란

안적사 상은 1919년에 개금이 이루어지기까지 흰 불석 자체의 모습

7) 『孝宗實錄』 11권, 효종 4년 10월 24일 병술 순치(順治)10년(1653) “丙戌以鄭世規爲大司憲 徐元履爲執義 權大運 李萬雄爲副修撰 李正英爲副校理 趙晉錫爲正言 崔惠吉爲江原監司, 李文偉爲慶尙水使”

으로 오랫동안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될 만한 앞선 기록으로 1801년 기장으로 유배되어 이곳에서 5년간 지내면서 쓴 심노승의 일기 『남천일록(南遷日錄)』에 “앵림산 안적사에 백색의 소상 3구가 봉안되어 있었다” 고 적혀 있다.<sup>8)</sup> 소상(塑像)은 흙으로 만든 상을 말하는데 당시 불상이 도금되지 않은 채 백색의 외형으로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적사 상은 백색 석회질의 고운 입자로 이루어진 불석제인데 심노승은 불석이 마치 백색의 흙으로 빚은 소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원래 개금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개금이 벗겨진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654년 기문에는 면금(面金) 등 금을 시주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안적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다른 일자의 일기 내용을 보면 안적사는 승려도 적고 제수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돈과 쌀이 없다고 기록하였다.<sup>9)</sup> 이로 보면 안적사 상은 도금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전각에 봉안되어 있었고 19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9년 이후 50여 년이 흐른 1970년, 그리고 다시 40여 년이 흐른 2014년에 안적사 상을 개금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적은 것이 개금불사기문이다. 먼저 1970년 개금불사기문을 보면 내용이 전반부는 조상(造像)과 후반부는 개금불사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에 수사도 이문(李文)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존상의 기문을 인용하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개금을 담당한 금어는 김동원이며 응화 2592년 즉 1970년에 실시한 것이라 적혀 있다.<sup>10)</sup>

8) 심노승, 『南遷日錄』 辛酉五月十六日(1801년 5월 16일) “安寂寺, 在萬南十五里鷲林山中…佛殿, 安佛三軀白塑, 傍有跌尊室, 懸小鐘, 扃戶無僧, 房軒新構甚潔…”

9) 『南遷日錄』 辛酉五月二十六日(1801년 5월 26일) “…嚮日往安寂寺見之 寺陋僧殘 不可辦具 且錢米無以得之 未果…”

10) “造像記文 慶尙南道東萊郡機張面內里鷲林山安寂寺 新羅國善德王師最大講師 義相 祖師創建之事 奉造阿彌陀佛已畢安于 順治十一年甲午六月初四日奉安日 佛像施主

마지막으로 불기2558년(2014)에 개금불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에는 불상에 흠집이 생겨 개금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어 개금이 박락되어 보기가 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금어는 이수준 거사이다.<sup>11)</sup>

이상의 불상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필자는 1919년 완호와 시찬에 의해 이루어진 개금불사에 주목하고 싶다. 개금불사는 상을 깎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개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0년이나 2014년에 고불상을 개금하는 과정에서 불상이 변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두 금어 모두 불석 조각의 경험이 없었던 인물들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완호는 유일하게 불석을 다루었던 인물이며, 1900년 후반에도 그의 계보를 잇는 금어들이 불석을 다루어 1970년, 2014년 안적사 개금불사에 참여한 금어가 불상을 깎고 다듬어 개금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 생각된다. 안적사 상과 1919년 완호와 시찬에 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Ⅲ. 나흠의 활동과 불상 특징

안적사 상을 조성한 나흠은 17세기 후반 불석제 불상을 조성한 석조 조각승 승호(勝浩)나 경옥(敬玉)보다 이전에 활동한 석조조각승으로 매

---

水使道李文居士時大衆秩住持宗演比丘畫員懶欽比丘持殿覺岑比丘性玄比丘改金佛事記文時大衆秩證師古庵相彦比丘持殿心印普化比丘會主昔嚴慧秀比丘金魚金東園居士住持德明慧性比丘施主金玄玉居士應化二千五百九十二年庚戌五月五日”：『개금불사기문』(1970)

- 11) “改金佛事記文 전래 내려온 古佛像에 흠집이 생겨서 改金佛事의 서원을 세우고(중략)…證明 佛國正觀比丘 持殿 玄覺比丘 點眼 海月善來比丘 金魚 이수준居士(하략)…佛紀二五五八年甲午十二月六日”：『개금불사기문』(2014)



이 상에 대해 『화엄사사적기(華嚴寺事蹟記)』에는 1636년 조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석가여래와 노사나불 조성기문에는 승정7년 갑술(1634)에 시작해 다음 해인 8년 을해(1635)에 마쳤다고 하였으며, 노사나불의 대좌 묵서에는 승정 7년 갑술(1634)로 적혀 있다. 모두 사적기의 내용보다 앞서는 기록들이며, 기문과 대좌의 기록이 상이한 것은 상의 제작완료일 혹은 봉안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었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이 불사에 나흠은 모두 18명의 참여 조각승 중 12위에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후기 조각승의 작업시스템으로 보면 하위 조각승은 이 지역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어 쌍계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1639) 조성에는 10명의 조각승 중 9위로 참여했으며, 진주 응석사 목조삼불좌상(1643) 조성에는 6명 중 6위로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다. 이 모든 불사는 수화승 청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표 2>.

나흠은 진주 응석사 상(1643) 조성에 참여한 이후 지금의 행정구역 상으로 보면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활동영역을 옮겨갔다. 청헌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청허(淸虛)를 도와 경산 경흥사 상(1644) 조성에 7명의 참여 조각승 중에 6위, 다음 해인 상주 남장사 상(1645) 조성에는 6명 중 5위로 참여했다. 즉 나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35년 구례 화엄사 상 조성에 처음 등장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청헌과 청허 아래에서 목조불상을 조성하면서 수련 기간을 보냈으며, 수화승이 되어서는 석조불상을 제작하면서 양산, 기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나흠의 활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와 활동한 관련 조각승들이다. 이들은 조각에 입문하여 배운 수화승과 비슷한 연배로 같이 활동한 조각승들로 나흠 불상의 양식적 특징의 연원을 파악해

12)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미술자료』 100, 2021, 145쪽.

볼 수 있어 중요하다.

먼저 스승인 수화승과의 영향 관계이다. 앞에서 파악해 본 바와 같이 나흠은 청헌과 활동했는데 청헌은 17세기 전반 경상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현진·청헌계파(系派)의 인물이다. 이 계파 조각승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옷 표현 즉 승각기와 하반신 옷자락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불상은 가슴 아래 승각기를 입는데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접거나 중앙으로부터 주름을 잡아 연꽃형으로 모양을 내는 등 조각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승각기 윗면을 바깥쪽으로 접어 안쪽 면이 보이도록 한 것은 현진과 그 계보를 잇는 조각승의 불상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현진의 진주 청곡사 대웅전 상(1615), 그의 계보를 잇는 청헌의 진주 응석사 상(1643), 그리고 기장 안적사 상에 서도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삽도 1①②③>.

<삽도 1> 나흠과 관련조각승의 불상- 옷 표현



이런 옷자락 표현은 자연스러움과 사실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요소로 주로 17세기 전반기 불상에서만 보인다. 안적사 협시보살상도 승각기 상단 옷자락을 바깥으로 접어 안쪽 면 가장자리가 둥그랗게 나타난다든지 혹은 띠 매듭 주변으로 잔주름을 표현한 점 등은 17세기 전반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자 현진 계보 조각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하반신 옷자락 표현이다. 현진·청헌계파의 불상은 걸가부좌한 양다리 사이 앞으로 두 개의 옷주름이 겹쳐 내려오는데 아래 옷자락 단 가장자리를 바깥으로 접어 끝단과 이어지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현진의 청도 적천사 대웅전 상(1636), 청헌의 진주 응석사 대웅전 상(1643)에서 이와 같은 표현기법을 볼 수 있으며, 기장 안적사 상에서도 두 개의 옷자락이 겹쳐 내려오고 아래 자락의 가장자리가 접혀 있는 모양은 서로 공통된다<삽도 1④⑤>. 이런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다른 계파의 불상에서는 볼 수 없으며 기장 안적사 상을 조성한 조각승의 계파와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흠의 불상 중에서 청허와의 관계를 파악할 만한 불상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으나 청허 역시 당대의 전라도에서 활동한 원오계파의 중요한 조각승으로 앞으로의 확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처럼 나흠은 청헌과 청허의 스승 아래에서 수련하면서 불상의 표현기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동시에 비슷한 연배의 조각승들과 활동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수용 변용해 나갔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각승으로는 오랜 수련기를 함께 보낸 영이(英頤 혹은 靈蹟)<sup>13)</sup>, 나흠이 수화승으로 활동하기 직전에 같이한 현욱(玄旭)을 빼놓을 수 없다<표 2>.

영이는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삼신불좌상(1626) 조성에 참여한 것이

13) ‘靈蹟’ 중 ‘蹟’을 ‘蹟’의 오기로 보고 있다. 최선일,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24, 2010, 75쪽.



가장 빠른 활동 내용인데 수화승 현진, 부화승 청헌을 비롯하여 모두 17명의 조각승이 참여했고 영이는 여기에 7위로 기재되어 있다. 또 그는 1633년 경기 양주 회암사 목조삼존불좌상을 조성해 청헌의 후배이지만 수화승으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만큼 이미 조각적 역량이 뛰어났던 인물로 짐작된다. 나흠과 영이가 같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구례 화엄사상(1635) 조성부터로 이어 하동 쌍계사(1639), 경산 경흥사(1644), 상주 남장사(1645) 불상 조성까지 10여 년을 함께 활동했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활동은 경산 경흥사와 상주 남장사의 불상을 조성한 이후이다. 주로 목조불상을 조성했던 두 조각승이 수화승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석제 불상만 제작했던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영이의 양주 회암사 목조상(1633)를 제외하면 나머지 울산 신흥사 상(1649), 영이의 추정작인 부산 운수사 상은 모두 석조불상이다. 나흠 역시 지금은 양산 원효암에 봉안되어 있는 1648년작 양산 통도사의 석조약사상을 조성했다. 경산, 상주의 활동이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이 불석의 산지로 알려진 기림사 일대와 가깝고 그곳으로부터 옮겨온 조선전기 불석제 불상이 현존해 있음을 보더라도 여전히 불석을 다루는 오랜 전통이 이곳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14)</sup> 이 두 조각승은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불석제 불상에 대한 조각기법을 익혔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나흠의 양산 통도사 상의 복장에 불석제 편을 복장물로 납입한 것은 “불석(佛石)”이라는 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영이에 이은 현욱은 나흠과 함께 경산 경흥사(1644)와 상주 남장사(1645) 상 조성에 수화승 청허, 부화승 영이와 함께 작업했다.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대구 보성선원 상(원 거창 견성암 상, 1647)

14) 이희정, 앞의 논문, 2019, 73쪽. 이승희, 「조선후기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삼존좌상」, 『미술사연구』 38, 2020, 219~233쪽.

은 현욱이 수화승, 나흠이 부화승으로 함께 제작했다.<sup>15)</sup> 대구 보성선원 상을 조성한 다음 해에 나흠은 양산 통도사 상(1648)을 조성했는데 이 상은 얼굴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은 얼굴형으로 대구 보성선원 상의 인상과 매우 유사해 서로의 영향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9, 10>. 그러나 각각의 조각승은 수화승으로 활동하는 초에는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영향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신체비례, 얼굴 등에서는 조각승 고유의 특징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현욱의 불상은 긴 상반신에 다리 너비는 넓으면서 무릎은 낮게 했고, 나흠은 어깨에 비해 다리 너비를 좁게 하면서 무릎은 높게 했으며, 영이는 짧은 상반신에 무릎 너비가 넓고, 무릎도 높은 편으로 전체적으로 옆으로 긴 직사각형의 신체비례로 개성이 돋보인다<그림 9~11>.



<그림 9>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현욱 1647년, 125.0cm



<그림 10> 양산 통도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나흠, 1648년, 75.0cm



<그림 11> 울주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영이, 1649년, 92.7cm

조각승의 작품을 결정짓는 요소는 얼굴이다. 세 조각승 모두 얼굴 너비에 비해 길이가 짧은 얼굴형은 공통되지만 콧등, 눈 길이와 눈꼬리, 눈

15)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見巖寺 玄旭派 釋迦三尊佛像의 도상특징과 腹藏연구』, 『강좌 미술사』 35, 2010, 373~424쪽.

겨플, 인증선의 너비와 도드라짐의 정도, 입꼬리 표현 등 세부 표현이 다르다. 또 영이의 불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조각승도 목조와 석조의 얼굴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삽도 2①④>. 그리고 육계나 계주의 모양, 크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나흠은 육계부가 아주 낮고 머리와의 경계에 중간계주가 큼직한 것은 다른 조각승과의 차이점으로 이런 표현기법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삽도 2①~④>.

한편 영이와 나흠의 불석 불상은 두 조각승의 솜씨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음을 알 수 있다. 나흠의 양산 통도사 상(1648)은 이듬해 영이가 조성한 울주 신흥사 상(1649)과 비슷한 점이 많다.

〈삽도 2〉 나흠과 관련 조각승의 표현기법



두 불상의 왼쪽 다리 위에 놓인 손을 보면 두툼하고 손가락은 짝막하며, 손가락 마디, 손금을 그린 모양, 특히 엄지손가락의 마디 하나를 꺾어 구부린 모양이나 살집을 표현한 것까지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사각의 각진 발 모양까지도 닮았다<삽도 2⑤⑥>. 하지만 영이의 울주 신흥사 상은 오른손이 마저 실제 사람의 손을 모델링 한 듯 사실감이 뚜렷하며 옷주름의 유연함 등은 나흠의 통도사 상과 차이가 있어 대동소이하면서도 기법에 차이를 보인다.

나흠과 영이 두 조각승의 석조불상이 이렇듯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으며,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나흠은 스승 그리고 함께 활동한 선배 조각승 등 관련 조각승들과의 활동을 통해 얼굴형, 옷 등 세부적인 표현기법을 선택, 변용하면서 독자적인 개인 양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흠, 영이 두 조각승은 17세기 전반 경상도 지역에서 불석제 불상을 제작한 현진·청헌계의 인물로 그 전통은 17세기 후반 석조조각승 승호와 경옥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 IV. 개금(改金)수리와 원형

### 1. 개금 수리

앞에서 안적사 상과 나흠의 불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흠의 안적사 상(1654)은 그가 제작한 통도사 상(1648)과 추정작인 기장 척판암 상과는 차이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년작인 양산 통도사 상과 안적사 삼존상 중 같은 여래인 본존불 석가상을 중심으로 신체비례, 얼굴,

옷 표현 등에 차이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며, 이는 곧 안적사 상의 변형 부분과도 관련된다.

〈삽도 3〉 나흠의 안적사 상과 통도사 상의 표현기법

			
<p>①기장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나흠, 1654년, 85.0cm</p>	<p>②기장 안적사 석조보살좌상 (우협사), 나흠, 1654년, 74.0cm</p>	<p>③양산 통도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나흠, 1648년, 75.0cm</p>	<p>④기장 척판암 석조여래좌상, 추정 나흠, 17세기 전반, 37.5cm</p>

먼저 신체비례와 손 모습이다<삽도 3>. 양산 통도사 상을 보면 처진 둥근 어깨에 목이 짧고 상반신에 비해 무릎이 높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다부져 보이며, 몸은 돌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에 반해 안적사 상은 각이 진 어깨에 상반신이 길고 무릎은 통도사 상과 마찬가지로 높다. 통도사 상에 비해 돌의 무게감이 덜하지만 무릎이 높은 것은 두 상이 공통된다. 통도사 상은 본존상 보다 오히려 양측 보살상의 신체비례와 무게감이 유사하다<삽도 3②③>. 즉 상대적으로 안적사의 보살상은 본존상에 비해 깎고 다듬은 정도가 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손가락의 표현에서도 확인되는데 통도사 상은 오른쪽 손가락을 모두 곧게 뻗어 있지만 안적사 석가상은 엄지의 중간 마디가 살짝 구부러져 있고, 보살상은 이와 달리 통도사 상과 같이 곧게 뻗어 있다. 한편 석조불상의 목이 짧은 것은 무거운 머리의 하중을 받기 위한 것으로 초기작의 석조불상에서 종종 보이는 특징이다. 돌을 다루는 기술적인 진전은 돌을 마

치 목조상과 유사한 특징으로 조각하여 무게감이 한층 덜 느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적사 상(1654)은 통도사 상(1648)에 비해 나흠의 조각기법이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이다. 통도사 상(1648)의 얼굴형은 이마선이 넓고 얼굴 길이가 짧으며 아래가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목구비를 보면 통도사 상은 눈꺼풀이 볼록하게 도드라져 있으며, 편평한 이마선에서 오뚝한 코로 이어지고, 미간도 넓다. 입술은 힘을 주어 다문 듯 가장자리를 움푹하게 깎아 내었고, 양 귀도 일정한 두께로 높게 조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안적사 상(1654)은 얼굴 폭이 좁아져 가름하며, 눈꼬리가 살짝 처진 작은 눈에 눈꺼풀이 얇다. 양미간 사이에 코 폭은 좁고, 콧등과 코끝은 둥글며, 입술은 살포시 다문 듯한 모양이다. 또한 양측의 귀도 귓불만 약간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안적사 상은 통도사 상에 비해 이목구비가 얇아지고 작아져 얼굴에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옷 표현의 경우도 통도사 상(1648)은 옷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옷주름선이 선명하며 힘이 있다. 반면 안적사 상은 통도사 상이 비해 전체적으로 옷의 두께가 얇아졌다. 특히 통도사 상의 승각기를 보면 상단이 밖으로 벌어져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 안적사 석가상은 긴 연잎 모양으로 상단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면을 편평하게 깎아 입체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원래는 안적사 석가상은 양산 통도사 상의 승각기와 하반신의 옷주름은 유사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한편 안적사 석가상의 배 앞에 대의와 편삼이 서로 교차되게 표현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삽도 4①>.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석가상은 하나의 대의를 돌려 입은 형식으로 양산 통도사 상과 같이 약사나 아미타상 등 석가여래 이외의 상들은 오른쪽 편삼 위에 대의를 걸쳐 입고 배 앞에 옷이 교차된 듯한 표현이 보인다. 따라서 석가상의 옷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착의법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삽도 4>.

<삽도 4> 나흠의 안적사 상과 원효암 상의 표현기법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나흠의 안적사 상과 통도사 상은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상임에도 서로 다른 표현기법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나흠의 기술적인 진전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더 큰 원인은 필자가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은 1919년, 1970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친 수리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렇다면 언제 이와 같은 수리가 이루어져 생긴 결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 조사에서 1981년에 찍은 안적사 상의 사진을 새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진 속의 본존상을 보면 <삽도 4①>과 같이 배 앞 대의와 편삼이 서로 교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2>. 즉 이 변형은 1981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2014년을 제외한 1919년과 1970년 두 시점으로 압축된다. 이중 1970년도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금수리는 훼손된 부분을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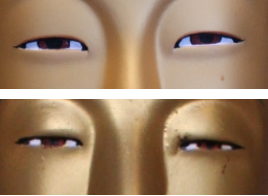




<그림 12> 안적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1981년 9월 촬영)

하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석 불상의 제작기법은 돌의 선택부터 제작까지 전승되어 경상도 지역 특히 부산은 불석을 다루는 가계의 계보가 따로 있으며, 이 가계가 완호의 계보를 잇고 있다.<sup>16)</sup> 즉 안적사 상은 1900년 초반 유일하게 불석 불상을 다루었던 완호에 의해 개금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특징이 안적사 상에서 확인된다.

1919년 안적사 상을 개금하기 이전 완호는 울주 시적사 석조지장보살좌상(1917), 부산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1918) 등을 제작했다. 이 상들과 안적사 상의 눈을 비교해 보면 작은 눈에 눈꼬리가 살짝 처진 듯한 눈매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삽도 5①②>.

<삽도 5> 완화의 불상 특징

			
<p>①부산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 1918년 완호작</p>	<p>②상 : 기장 안적사 석가여래좌상, 1919년, 완호·시찬 개금 하: 부산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 1918년, 완호작</p>	<p>③기장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1919년, 완호·시찬 개금</p>	<p>④울주 시적사 석조지장보살좌상, 1917년, 완호작</p>

또한 완호의 불상은 손 표현이 특이한데 엄지손가락을 벌려 한 마디를 살짝 구부린 것이 특징적 요소로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본존상의 손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이러한 특징 역시 안적사 석가상의 손가락에서 확인된다<삽도 5③④>. 안적사 석가상은 전체적으로 두

16) 임보라, 「근대기 경상도 지역의 완호 불상 연구」, 『문물』 7, 2017, 197쪽.

17) 임보라, 앞의 논문, 2017, 212~213쪽.



깨감이 보살상에 비해 얇아 둔중함이 덜하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완호는 본존상을 먼저 수리하고 이후 보살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보살상은 본존상에 비교해 얼굴 외에 깎고 다듬은 부분이 많지 않다.



〈그림 13〉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복장공, 1919년 개금



〈그림 14〉 통영 안정사 나한전  
석조여래좌상 복장공, 1681년

한편 석가상은 복장공 내부도 칼끝이 둥근 조각도를 이용하여 다시 속파기를 했다<그림 13>. 복장공은 단을 이루어 깊게 파낸 형식으로 조선후기 불석제 불상의 일반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석불의 내부는 평갈을 이용하여 돌을 때 내므로 면이 편평하고 칼끝이 닿은 면은 직선으로 나타난다<그림 14>. 무른 돌의 특성상 조각도를 밀어 편평하고 얇은 면으로 표현하는 기술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둥근 칼을 이용하여 속파기를 했을 경우 평갈보다 훨씬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을 맡은 이가 시찬일 가능성이 높고 본존의 배 앞 옷과 같은 부분적인 조각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찬은 1914년 이후부터 완호의 보조화승으로 1931년까지 여러 불사를 함께 했다.<sup>18)</sup> 1918년과 1919년은 시찬에게 큰 변화가 될 만한 행적이 있다. 1918년 통도사 구하스님은 일본을 시찰하기 위해 조선불교 시찰단을 모집하였는데 시찬은 이 단원으로 일본을 유학하게 되었으며, 이때 서양 학문과

18) 문년순, 앞의 논문, 2010, 5쪽.

서양화법 등 서양미술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sup>19)</sup> 시찬은 스승인 완호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삼국의 사찰과 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으며<sup>20)</sup> 1919년 귀국 후 일본 유학에서 배운 서양미술의 새로운 기법을 안적사 상에 활용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완호 역시 안적사의 지장시왕도와 석조삼존상을 개금하던 때는 완호의 화업 초반기로 그의 작품은 정형성이 없이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바탕으로 개인 양식을 확립해 나가던 시점이었다.<sup>21)</sup> 따라서 지금까지 완호 자신이 제작했던 불석제 불상에 비해 월등히 규모가 큰 안적사 상을 수리하고 개금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중요하고도 힘든 불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존상에 비해 보살상의 얼굴, 손, 옷 등의 변형이 적은 것은 완호, 시찬 두 화승이 본존의 개금 수리 과정에서 느낀 조각 혹은 표현의 기법적 한계가 두 보살상의 변형이 덜한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 2. 원형

지금까지 살펴본 나흠의 불상은 얼굴, 머리, 신체비례, 옷 등에서 중요한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즉 아래로 좁아지는 넓적한 얼굴, 큼직한 반원형의 중간계주, 처진 둥근 어깨에 높은 무릎,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무릎 위 옷주름, 다리 앞의 반전된 옷자락과 이와 이어지는 두꺼운 물결형의 끝단, 그리고 보살상의 나지막한 겹보관 등이다. 비록 안적사 상의 얼굴은 개금 과정에 변형되어 나흠의 불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체와 의습의 표현에서는 여전히 그의 불상 특징이 잘 남아 있다. 흥미롭게도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이 대동소이한 석조삼존상이 범어사

19) 구회영, 『近代畫僧 石霞施讚의 幀畫研究』, 중앙승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8~9쪽.

20) 구회영, 앞의 논문, 2018, 8쪽.

21) 임보라, 앞의 논문, 2017, 196쪽.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 범어사와 안적사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 반 범어사의 묘전(妙畵)화상, 18세기 후반 경허(慶虛)선사가 안적사의 중수를 담당했던 것을 보면 이 두 사찰은 오랫동안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범어사 나한전에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 제화갈라보살상, 좌측에 미륵보살을 둔 석가여래삼존 도상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상 구성은 조선후기 대웅전 혹은 나한전(영산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삼존상은 불석제로 한 돌로 제작되었다<도 15>. <sup>23)</sup>



<그림 15> 범어사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석가여래상(본존 81.5cm), 제화갈라보살상(우협시 72.5cm), 미륵보살상(좌협시 69.0cm)

범어사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이하 범어사 나한전 상)에 대해서는 나한전 전각이 일제강점기(1905)에 수리되었다는 점<sup>24)</sup>과 상 뒷면

22) 주 4)과 동일.

23) 범어사 성보박물관, 《梵魚寺의 佛象》, 2021, 54~61쪽 사진 인용.

24) 김윤정·서치상, 「1905년의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중건공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1, 378~375쪽.

에 걸려있는 <석가여래회도>와 <십육나한도>가 1903년에 그려진 제작연대 등으로 말미암아 근대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는 안적사 상의 특징이 범어사 나한전 상과 매우 유사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나한전 삼존상의 특징을 보면 신체에 비해 머리가 작고, 목은 가늘고 긴 편이며, 둥글면서 처진 넓은 어깨, 상반신이 길고 무릎이 높은데 둘의 목직함보다 목조상과 같은 신체비례로 통도사 상에 비해 무게감이 덜하다. 이마선이 넓고 아래로 좁아지는 얼굴형으로 본존인 석가상은 머리와 육계의 경계에 반원형의 큼직한 중간계주가 있다. 이마로부터 편평하게 내려오는 오뚝한 코, 도드라진 인중선, 입술 양 끝을 움푹하게 파았다. 오른쪽 어깨에 끝단이 둥글면서 층단식으로 접힌 옷주름과 상단이 밖으로 벌어진 승각기, 간결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하반신의 옷주름과 다리 앞에 반전된 옷자락의 가장자리는 다시 두꺼운 끝단과 이어진다. 이런 표현기법은 얼굴을 제외하고 통도사 상, 안적사 상과 공통됨을 알 수 있다.

양측 보살상을 보면 우측 제화갈라보살상은 오른쪽 편삼 위에 대의를 두른 변형통견식의 옷을 입고, 좌측의 미륵보살상은 위에 옷을 입지 않고 어깨에 솔처럼 천의를 걸치고 있다. 가슴 아래 승각기는 큼직한 3개의 옷주름으로 접었으며, 띠를 둘러 매듭을 만든 후에 끈 자락을 양측으로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옷차림의 보살상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존상(1603),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상(1610), 구례 화엄사 목조삼신불좌상(1636)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7세기 전반 보살상의 특징으로 범어사 나한전 상의 제작 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보살상은 모두 나지막한 겹보관을 머리에 썼는데 보관 끝이 능형을 이루며 상단에 당초문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안적사 보살상의 보관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흠의 양산 통도사 상(1648), 안적사 상(1654)과 범어사 나한전 상의 공통된 표현기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적사 상은 범어사 나한전 상과 신체비례 등 전체적인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조각승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와 얼굴에서 드러난다. 범어사 나한전 상은 나흠의 통도사 상에 비해 얼굴이 작아지고 양 볼의 양감도 줄었으며, 목도 가늘어졌다. 그러나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얼굴형, 나지막한 육계에 반원형의 큼직한 계주, 도드라진 눈꺼풀과 사선으로 치켜 올라간 눈, 입술을 양 끝을 꺾어 만든 미소 등의 세부 표현은 같다. 특히 두툼한 두꺼의 외이도와 귓볼, 그리고 귀 내부에 길게 판 삼각와까지 매우 유사하다<삽도 6①②>. 조선후기 불상은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각된 귀, 눈, 입술 등의 세부적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때 범어사 나한전 상은 분명 통도사 상을 조각한 인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적사 상도 수리로 인해 외이도나 두꺼 등이 줄었으나 긴 삼각와, 작은 얼굴에 가늘어진 목 등의 특징은 범어사 나한전 상과 유사해 1919년 개금 수리 이전 안적사 상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삽도 6③>.

<삽도 6> 나흠 불상의 특징 - 얼굴, 귀 표현



다음은 옷의 특징이다<삽도 7>. 양산 통도사 상(1648)의 승각기는 상단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 마치 연꽃이 벌어져 있는 모양으로 입체적이다. 범어사 나한상 역시 가운데부터 맞주름을 접어 나간 것이나 상단이 밖으로 외반되어 있는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다. 안적사 석가상은 승각기의 면이 1919년 개금과정에서 평면화되었으나 높게 승각기를 올려 입은 모습이나 가운데부터 주름을 잡아 모양을 낸 것은 통도사 상, 범어사 나한전 상과 닮았다. 이를 제외하면 무릎에서 발목으로 올라가는 힘 있는 옷주름, 다리 앞 두 개의 옷주름 중 아래 자락의 가장자리가 반전되어 둥글고 두꺼운 끝단과 연결되는 특징은 범어사 나한전, 통도사 상, 안적사 상이 모두 공통된다. 범어사 나한전 상의 옷주름 수가 통도사 상에 비해 줄어 간략화된 것을 보면 1648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삽도 7①②>. 반면 안적사 상과 범어사 나한전 상은 줄어든 옷주름 수 등 간략화된 기법 등으로 보아 두 사찰의 불상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삽도 7〉 나흠 불상의 특징 - 옷 표현



한편 범어사 나한전 좌협시인 미륵보살상은 나흠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의 불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 상은 천의를 두르고 가슴 아래 띠로 묶어 매듭을 만든 후 끈 자락을 좌우로 펼쳐 놓았는데 이 형식은 영

이가 만든 부산 운수사 석조미륵보살상과 청허가 1640년대에 제작한 대구 동화사 내원암 목조보살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는 나흠, 영이, 청허가 경흥사와 남장사의 불상을 같이 제작한 이후의 결과이며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의 표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삽도 8>.25)

<삽도 8> 나흠 불상의 특징 - 옷 표현



또한 이와 같은 띠와 끈매듭 등의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스승의 표현기법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17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당시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안적사와 범어사 나한전의 보살상은 보관에서도 유사성이 엿보인다. 모두 소판에 대판을 붙인 이중의 겹보관 형식을 모방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안적사 상이 조금 더 높고 보관 상단에 당초문 조각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표현기법은 동일하다<삽도 9①②>.

17세기 불석제 보살상의 보관은 전면에 당초 혹은 모란문 등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삽도 9④>. 조선후기 불상의 보관은 고려후기

25) 이희정, 『동화사 내원암 목조보살좌상 연구』, 『선문화연구』 28, 2020, 337~382쪽.

부터 유행한 높은 겹보관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sup>26)</sup> 조선후기에는 두 겹으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하여 상단은 당초문을 투각하고 하단은 문양을 조각하여 간략화되었다<삽도 9③>. 안적사 상이나 범어사 나한전 상은 겹보관의 형태를 모각했는데 나지막한 보관으로 문양을 생략하거나 간결하게 표현한 것은 다른 조각승과 차별화되는 나흠의 개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삽도 9〉 나흠 불상의 특징-보관



이상으로 볼 때 범어사 나한전 상은 통도사 상(1648)과 옷, 이목구비, 등의 표현이 유사하며, 신체비례, 얼굴 등에서 불석을 다루는 조각기법이 진전되어 목조상과 닮은 표현기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적사 상은 통도사 상보다 범어사 나한전 상과 대동소이한 특징으로 원래 모습, 즉 원형은 범어사 나한전 삼존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어사 나한전 상의 제작시기는 통도사 상에 비해 양식적으로 약화되고 안적사 상과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므로 안적사 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도사 상의 조성시기인 1648년을 상한으로 하한은 묘전(妙全) 주도하에 범어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1658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sup>27)</sup>

26) 윤근영,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보살상의 당초문겹보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7쪽.



## V. 결론

이상으로 안적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존상 중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긴 상반신에 높은 무릎, 높게 올려 입은 승각기, 힘 있는 다리 위의 옷주름, 물결형에 두꺼운 끝단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보살상은 처진 둥근 어깨, 뭉툭한 곧은 손가락, 나지막한 겹보관, 띠 위로 드러나 있는 둥근 승각기 끝단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조상기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630년 후반부터 1650년대에 활동한 조각승 나흠에 의해 1654년에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나흠 불상의 조형성은 함께 활동한 수화승 청현과 청허, 영이와 현욱 등 선배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목조불상으로 수련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승으로 활동하면서부터 돌(불석)을 재료로 하였음은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1648년에 제작된 양산 통도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이며, 불석편을 복장물로 납입한 것은 불석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마도 이런 변화의 계기는 경산(1644)과 상주(1645)로 활동지역을 옮겨가면서 불석제 불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곳은 불석의 공급지와 가깝고 오랜 불석 조각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작기법을 익혔을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나흠은 영이와 밀접한 관계로 나흠은 기장 안적사, 척판암, 범어사 등을 중심으로, 영이는 울산 신흥사, 부산 운수사 등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활동하여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해 감을 남아 있는 불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7세기 후반 석조조각승이 승호, 경옥이라 한다면 17세기 전반 석조조각승은 나흠과 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로 인해 석조불상의 제작이 비롯되었다고

27) 주 4)내용 참조.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안적사 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것은 나흠의 통도사 상과 얼굴, 신체비례 등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1919년 완호와 시찬이 개금불사를 하면서 생긴 변화인데 그들은 개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삼존상의 얼굴과 신체 등을 깎고 다듬어 완호 불상의 특징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눈, 구부러진 엄지 등의 표현은 완호 불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즉 안적사 상은 1654년 나흠과 1919년 완호의 양식적 특징이 혼재되어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완호는 근대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모(佛母)로 전통적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개성이 있는 불상과 불화를 제작했으며, 당시 유일하게 불석 불상을 제작한 인물이었다. 안적사 상은 그가 제작했던 중소형의 불석제 불상과는 다른 규모의 조선시대 불석제 상으로 그 의미는 남달랐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존상이 양측 협시에 비해 변화가 많은 것을 보면 이를 담당한 완호와 시찬이 조각기법에 한계를 느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적사 상을 통해 또 다른 나흠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범어사 나한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으로 안적사 상의 신체비례, 옷의 표현 등과 대동소이하다. 안적사 상은 돌의 질감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통도사 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 원형은 범어사 나한전 상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통도사 상으로부터 범어사 나한전 상으로 나흠의 작품이 변화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나흠의 안적사 석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은 조선후기 최고의 석조불상인 통도사 석조약사여래좌상(1648) 제작 이후 나흠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 『梵魚寺誌』  
『南遷日錄』  
『孝宗實錄』  
『寺刹考』  
『梵魚寺本末寺財産臺帳』

### 2. 저서 및 논문

- 기장근지편찬위원회, 『기장근지』하, 기장군청, 2001.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김연진, 「근대기 불교조각의 특징과 일본불상의 유입」, 『美術史學研究』 30, 2019.  
덕명, 『안적사 창건유래』, 안적사, 1972.  
박은경의 『범어사의 불교미술』, 선인, 2011.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구회영, 「近代畫僧 石霞施讚의 幀畫研究」, 중앙승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윤정·서치상, 「1905년의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중건공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1, 2007.  
문년순, 「불모 양완호의 생애에 대한 재고」, 『항도부산』 26, 2010.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見巖寺 玄旭派 釋迦三尊佛像의 도상특징과 腹藏연구」,  
『강좌 미술사』 35, 2010.  
범어사 성보박물관, 『梵魚寺의 佛象』, 2021.  
윤근영, 「고려후기·조선전기 보살상의 당초문경보관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이승희, 「조선후기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삼존좌상」, 『미술사연구』 38, 2020.  
이희정, 「조선 전기 불상 특징과 조선 후기 17세기로의 이행」, 『한국중세고고학』 6,  
2019.  
\_\_\_\_\_, 「창원 성주사(聖住寺) 지장전과 영산전 석조불상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  
18, 2010.  
\_\_\_\_\_, 「동화사 내원암 목조보살좌상 연구」, 『선문화연구』 28, 2020.

- 임보라, 「근대기 경상도 지역의 완호 불상 연구」, 『문물』 7, 2017.
- 조원영,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향도부산』 31, 2015.
- 최선일,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한국미술사교육학 회지』 24, 2010.
- 최성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미술자료』 100, 2021.

투고일 : 2022. 05. 20. 심사완료일 : 2022. 06. 26. 게재확정일 : 2022. 07. 14.
---

〈참고 1〉 안적사 대웅전 조상기문-석가여래좌상(본존)

「造像記文

慶尙左道機張南面鶯林山安寂寺  
 過去義相祖師創建之事 造像已畢安于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功成佛道  
 順治十一年甲午六月初四日奉安日  
 主佛大施主水使道李文 兩位壽命長 金衫嚮靈駕  
 左補處大施主朴一男 兩主 摩音礼 單身  
 申德山 兩主  
 右補處大施主金職 兩主 申衞善 單身  
 供養大施主崔二男 兩主  
 喉吟筒施主韓元龍 兩主 緣化秩  
 泥師團施主朴民 兩主 證師  
 布施主者音眞 單身 持殿覺岑 比丘  
 畫員懶欽 比丘  
 寺內秩 玉連 比丘  
 德花 比丘 性玄 比丘  
 慧凝 比丘 德日 比丘  
 信行 比丘 侍者順連 單身  
 海連 比丘 供養主麗默 比丘  
 持寺宗演 比丘 靈旭 比丘  
 三剛印彦 比丘 別座了安 比丘  
 康鳳納子幹善道人能悟 比丘  
 扶化主印宗 比丘」

〈참고 2〉 안적사 대웅전 불상 조상기문

「造像記文

慶尙左道機張地南面鷲林山安寂寺

過去義相祖師創建事 造像已畢安于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功成佛道

順治十一年甲午六月初四日奉安日

主佛大施主 金衫箇靈駕 畫員秩

左補處大施主朴一男兩主 證師

右補處大施主金職伊保體 持殿覺岑 比丘

供養大施主崔二男兩主 畫員懶欽 比丘

喉吟箇施主韓元龍保體 玉連 比丘

圍團施主 朴民 兩州 性賢 比丘

布施主者音眞 單身 德一 比丘

寺內秩 供養主麗默 比丘

德花 比丘 靈旭 比丘

慧凝 比丘 別座了安比丘

信行 比丘 康鳳納子幹善道人能悟 比丘

海連 比丘 扶化主印宗 比丘」

持寺宗衍 比丘

三剛印彦 比丘

〈참고 3〉 안적사 대웅전 불상 조상기문

「造像記文

慶尙左道機張地南面鶯林山安寂寺

過去義相祖師創建事 造像已畢安于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功成佛道

順治十一年甲午六月初四日 奉安日

主佛大施主 金衫旻靈駕

左補處大施主朴一男兩主

右補處大施主金職 保體

供養大施主崔二男 兩主

喉吟筒施主韓元龍 保體

泥師團施主 朴民 兩州

布施主者音眞 單身

寺內秩

畫員秩

德花 比丘

證師

慧凝 比丘

持殿覺岑 比丘

信行 比丘

懶欽 比丘

海連 比丘

玉連 比丘

持寺宗演 比丘

性玄 比丘

三剛印彦 比丘

德一 比丘

緣化秩

供養主麗默 比丘

靈旭 比丘

別座了安 比丘

康鳳納子幹善道人能悟 比丘

扶化主印宗 比丘」

| Abstract |

A Study on the Stone Seated Sakyumuni Buddha Triad Statues  
of Anjeoksa Temple in Gijang Province

Lee, Hee-Jung

Anjeoksa Temple, a branch temple of Beomosa Temple, is located at Aengrim mountain which belongs to northern mountain range of Jangsan mountain in Gijang province. In 661(1st year of Munmoo King), prominent buddhist monks, Weonhyo and Yisang found a group of nightingales blocking their way when they arrived near Jangsan during their religious training. Recognizing auspicious atmosphere nearby, they decided to build underground cave and started to practice religion. Current Anjeok Temple is same place where they built underground cave. Even though, there are no remains of that time, buddhist statue is still preserved in Daewoong-jeon after Korea-Japan War in 1492.

Until quite recently, this statue was known to have been built in modern times, however, this research showed that sculpture monk named Naheum made the statue in 1654. This fallacy regarding the time of sculpture resulted from the repair work executed by sculpture monk Wanho and Shichan in 1919. The two sculpture monks mainly having worked around Gyeongsang Province, sculptured and painted many statues and buddhist painting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aster pieces is breaking typical style and reflecting the outcomes of their own personal religious training and experiences based on tradition. The original sculptor Naheum also made the sitting stone Buddha at Weonhyo-am in Yangsan City which is the oldest stone Buddha statue made of zeolite stone. 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other statue found made by Naheum, it is quite meaningful that the statue at Anjeok Temple is made by Naheum through this study. Furthermore, by the comparison of two stone statues at Anjeok Temple and Weonhyoam, we can find out that the statue in Nahan-jeon at Beomeosa was made by Naheum and also confirmed the original shape of the statue in Anjeok Temple.

**Key words:** Gijang province, Tongdosa, Naheum, Bulseok, zeolite stone, Beomosa, Nahan-jeon, Wanho, Shichan

